시흥시 독서 관련 문화 사례 조사 (이슈 인터뷰)

2023 시흥 한 책

2023 시흥 한 책은 시민이 직접 책을 선정한 후,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계한다.

위 행사의 결과로, 266명의 시민이 365권의 책을 추천했으며, 이중 8권을 후보 도서로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‘시흥 한 책’을 정했다.

이 행사의 취지는, 시흥시의 인규 유입, 신, 구도심간 격차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읽는 경험의 자리를 마련해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.

시흥시 도서관은 시민 1인당 도서 2.5권 보유를 목표로 지속적인 장서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.

예산을 더 투입 받아 신간도서를 구입하고, 희망도서 설문조사,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.

또한, 달라진 독서 문화에 따라 오디오북, 전자책 등 디지털 정보매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보편의성을 높였다. 2023년에는 12개 공공도서관에 ‘오디오북 존’을 구축하고, ‘온라인 구독형 오디오북’ 구독권을 제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.

다음으론,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‘책 읽는 돌봄교실’이 있다.

장현동 노루우물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학습, 숙제 지원, 일생 생활 지도, 글쓰기 지원, 간식 제공 등이 이뤄진다. 집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자연스럽게 생활속에 독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.

정리하자면, 시흥시에선 생활 속 독서 문화와 독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,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,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.

[출처]

다빈영상미디어, “책 읽는 인문도시 시흥,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으로”, 2023,04,19,

http://www.davin.kr/xe/?mid=davin6&order\_type=desc&sort\_index=regdate&page=1&document\_srl=66628